

# 녹색은 물결

통권 282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3 2023



##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지난 2월 20일 메가페밀리리뷰페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환경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소식지  
· 2023년 3월호

CONTENTS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려



또 나온 당진 핵발전소(SMR) 발언



충남환경운동연합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 ▶ 발행일 2023. 3.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유형민, 박희선,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껌데기는 가라 / 신동엽
- 4 사과문
- 5 경과보고
- 6 지역환경초점1  
|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려
- 8 지역환경초점2  
| 또 나온 당진 핵발전소(SMR) 발언
- 10 지역환경단신1  
| 당진시,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다.
- 11 지역환경단신2  
| 충남환경운동연합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 12 지역환경단신3  
| “불산공장 입주 취소될 때까지 투쟁 이어나갈 것”
- 13 전국환경초점1  
|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지켜야 ... 국토부, 규제 완화 중단하라”
- 14 전국환경초점2  
|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 봄에 완료”
- 16 전국환경초점3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 환경부 ‘조건부 동의’
- 17 전국환경초점4  
| 5만명 청원 ‘탈석탄법’ 논의 시작 ...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 18 전국환경초점5  
|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19 2월 살림살이
- 20 2월 활동소식
- 22 3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껌데기는 가라

신동엽

껌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껌데기는 가라.

껌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껌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껌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설할지니

껌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기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작가소개 신동엽

충남부여출생. 전주사범학교와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59년 <이야기하는쟁기꾼의대지>가 (조선일보)신춘문예에 입선되었으며, 1961년부터 명성여고에서 국어교사를 재직했다. 1967년에 4,800여 행에 달하는 서사시 <금강>을 발표함으로써 확고한 문학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작품과 더불어 민중의 정서에 따른 시적 형상을 창조했다.

## 사과문

현재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소속 임직원이 현대제철에서 비용을 부담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시민단체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회원들과 당진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운동단체로서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바라고 있는 당진시민의 윤리기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었음을 통렬히 가슴에 새기며 시민단체 임직원으로서 철저한 윤리의식 부족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임직원은 지난 2월 15일 저녁 모 식당에서 당진시청 공무원,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직원, 민간환경감시센터와 함께 총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간담회를 가지고 소통하되 비용은 참가한 곳들이 돌아가면서 지불하자고 논의하였고 이날 비용은 현대제철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21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당진시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간담회 비용이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상한액에 위배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지한 즉시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참가자들에게 통지하여 개별적으로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임직원의 행동은 시민환경단체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사였으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한편 법적 책임이 따른다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당진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시민운동단체로서 기대에 부응하는 당진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사)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 송영주 / 황성렬

## 2월 15일 간담회 관련 경과 보고

- 지난 해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과정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2월 초 당진시청에서 환경 현안과 관련된 곳들이 소통과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기후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 현대제철, 당진화력,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와 함께 만나서 풀어보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당진환경운동연합도 참석해달고 함.
- 2월 15일 원당동 서래원에서 참석 기관 단체 2명씩 총 14명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진행되어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 참석함.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계속 소통의 자리를 만들되 비용은 현대제철, 당진화력, 당진시청, 환경연합 등이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됨.
- 2월 21일 당진시대 기자가 소들섬대책위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현대제철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입장이 뭐냐고 묻는 연락이 와서 성명서를 확인해본 결과 소들섬대책위에서 당진환경연합과 시청 공무원이 당진의 고급 소고기집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접대를 받고 유흥을 즐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음.
- 당진시대 기자에게 전화해서 “그날 자리는 시청 환경과에서 소통을 위해 모은 자리고 환경연합도 참석해달라고 해서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 갔던 거다. 첫 자리는 현대제철이 결제하지만 앞으로 돌아가면서 비용을 내고 계속 자리를 만들어가자고 했던 거다. 왜 이게 접대, 유흥이라고 표현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함.
- 21일 오후 시청 공무원에게 알아보니 그날 결제 금액이 개인당 3만원이 넘어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돼 개인별로 현대제철에 송금했다는 말을 듣고 환경운동연합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그날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참가자들과 협의해 공무원들처럼 비용을 반납하기로 하고 당일 저녁 시청 공무원에게 반납금액과 계좌를 확인해서 환경운동연합 소속 참가자들에게 알려 개인별로 반납하도록 함.
- 21일 공동의장단에게 상황을 보고하였고 논의 결과 27일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처리방안 대해 논의하기로 함.
- 27일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조속히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사과문에는 사과의 내용과 함께 참가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윤리규정 제정을 담기로 함.
- 3월 2일 사과문을 작성하고 회람한 후 언론 배포, 홈페이지 게시함.

#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려



지난 2월 20일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2023년 정기총회를 지난 20일 메가패밀리뷔페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영상 활동보고와 회원 소모임 ‘난리부르스’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및 공로패, 우수회원상 수여가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전차회의록 보고 및 채택의 건 △전년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전년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공동의장단 임기 연장 동의(안) 승인의 건 △2023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7건을 상정, 의결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1년 임시총회와 2022년 정기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으로 법적 지

위를 변경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창립 이후 공동의장단 방식을 유지해온 가운데, 공동의장이라는 직책이 사단법인 정관에 존재하지 않으나 총회 결의로 공동의장을 두고 2024년 정기총회 임원 선출시까지 이사장 손창원, 이사 송영주·황성렬의 공동의장단 임기를 연장했다.

이날 사업 부문 감사보고에서 이경희 감사는 “현대제철 슬래그 오염수 유출 및 소들섬 송전선로 대응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의 갈등으로 지역 연대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알려나가고 지역 단체들과의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감사패 이근주 회원, 김병빈 회원, 공로패 안효신 회원, 이충휘 회원

**수상자 명단** 감사패: 이근주 / 김병빈 / 차재석 공로패: 이충휘 / 안효신 우수회원: 전향숙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회계 부문에서는 “기후에너지사업은 사업 비중이 높고 사업 진행 횟수가 많지만 지출 규모는 매우 작아, 사업의 비중에 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당진시대]



난리부르스 공연모습

## 또 나온 당진 핵발전소(SMR) 발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당진에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의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5일 홍성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충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오정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이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에 핵발전소(SMR) 도입을 제안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정근 특위위원장은 “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방침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탈(脫)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전 정부 얘기고, 지금은 원전을 복원하고,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당진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해결하는 문제는 수소로 역시 가지만, 방향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 핵발전소(소형모듈원전, SMR) 건설을 시사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선거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이었던 주 교

수의 ‘충남 당진 등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SMR) 건설’이라는 망언이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실은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언론 인터뷰는 개인 의견이고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오정근 특위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중요 관계자이며 충남의 의견을 듣는 공식석상에서 나온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뭉개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SMR은 소규모로 전력망 연결도 쉽고 분산형 전원으로 알맞으며 안전해서 건설해야 한다면서 왜 굳이 멀고 먼 당진과 충남 석탄화력 폐쇄부지에 지어 송전 손실을 감내하고 송전탑으로 끌고 가려하는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도 핵폐기물 처리방안이 없어서 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보관하는 마당에 SMR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중략)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중략)오정근 특위위원장의 당진에 핵발전소(SMR)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중략)고 강조했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 기후위기충남행동 “SMR(핵발전)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오정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의 ‘충남 석탄화력 폐쇄 지역에 핵발전소(SMR) 도입’ 시사 발언이 후폭풍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충남행동·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노동자모임은 22일 충남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일 홍성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충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나온 오정근 특위위원장의 당진 핵발전소(SMR) 건설 망언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충남행동 황성렬 공동대표는 (중략)“충남도민들은 오랫동안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며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보내온 희생을 치러왔다며 이번 발언은 충남도민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망언”이라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이는 석탄발전 폐쇄 부지에 대한 지역전환 논의가 늦어짐에 따라 나오는 것”이라며 “충남도지사는 하루 빨리 석탄발전 폐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공공운수 PSC지부 박중현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폐쇄해야 함을 석탄발전 노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월 22일 기후위기 충남행동 등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석탄발전 폐쇄 이후 핵발전(SMR)은 세계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충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충남은 지난 40년간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말하고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너흰 만들어, 우리 쓸게”라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에너지정책이 지속되어서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우리가 가야 할 기후위기 극복의 길은 SMR을 비롯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민과 함께 다시 불거진 핵발전소(SMR) 충남 건설 망언에 적극 대응하며 전국의 석탄화력 소재지역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더원 일부 발췌]

## 당진시,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출범



지난 8일 당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당진시가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했다. (중략)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규 기회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기존정책의 효과성·실효성 평가를 통해 변화된 여건에 맞는 계획의 수정·보완하고, 중장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인벤토리 최신화 그리고 정책의 현실성, 지속성,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50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해 2050년까지 지역 차원에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당진시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기후 위기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8일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 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당진시 기후변화 여건 및 영향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극대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김영명 부시장과 황성렬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3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당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그 외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논의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 충남환경운동연합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상임대표로 예산홍성환경연합 운동권 의장



지난 2월 24일 충남환경운동연합 정기 대의원대회가 내포혁신플랫폼에서 개최됐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신임 상임대표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운동권 의장을 선출하고 사무실을 내포혁신플랫폼으로 옮겨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했다..

2023년 충남환경운동연합 정기 대의원대회가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내포혁신플랫폼에서 개최됐다.

이날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는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서기지면, 상임대표 인사, 지역조직 보고, 주요활동 보고, 안전상정 및 회순채택, 안전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심의회는 △전차회의록 채택 △감사보고서 채택 △임원 선출 △사무실 이전 결의 △2022년 사업평가안 승인 △2022년 결산안 승인 △2023년 사업계획안 승인 △2023년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상임대표로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운동권 의장이 선출됐으며 사무실은 내포혁신플랫폼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2022년 사업평가

안 및 결산안과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일부 지구 수정, 오기 수정을 포함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충남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응활동은 애초에 기후에너지 특위 활동에 함께 하는 정도로 생각했으나, 충남 활동가들이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했다"고 2022년을 평가하며 2023년에는 조직강화사업과 함께 수질, 석면 등 충남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응강화와 지역연대활동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특위 조순형 위원장은 "기후의제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2022년을 평가하며 2023년에는 탄소중립 실현, 석탄화력 조기폐쇄, 정의로운 전환 등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3년 간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한 김정진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글: 사무국]

# "불산공장 입주 취소될 때까지 투쟁 이어나갈 것"

## 행정소송 판결 앞두고 반대 주민 결집... 서명운동과 반대집회 천명



24일 석문개발위가 회의를 열고 불산공장 반대대책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석문국가공단의 불산공장 입주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사)석문면개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불산공장(램테크놀러지) 반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에 강정의 석문면개발위원장, 유병수 석문면이장단협의회장, 인나환 개발위원회 고문 등 3명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램테크놀러지 본사 앞과 천안의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충청지사, 당진시청 등에 입주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지역에 집회신고를 할 예정이다.

램테크놀러지는 금산 소재 불산공장을 석문국가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LH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이후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세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시는 이를 반려했다.

당진시의 반려에는 공장 운영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안 된 상태고, 주민들에게 공청회

나 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석문면민들이 안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램테크놀러지는 이에 불복해 충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심판 패소에도 불구하고, 램테크놀러지가 다시 대전지방법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지역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오는 8일 변론기일이 잡혀있으며 5월경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송산면민들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5천여 명의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집회를 실시하는 등 불산공장 입주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오마이뉴스]

#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지켜야..."

## 국토부, 규제 완화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도시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와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확대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지켜내라', '시민의 녹색 기본권 보장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보고에 이어 이달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100만㎡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30만㎡까지였던 해제권한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해제권한을 대폭 늘린 것이다.

단체들은 2021년 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최초 지정면적의 70% 수준인 3793㎢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원

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고,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은 수도권 4%,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전문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 보존해야 할 곳만 남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한다"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탄소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출처:한겨레]

#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 봄에 완료"

## 오염수 저장탱크 만재 예상 시기는 내년 봄으로 늦춰질 가능성 기시다 "올해 봄~여름 방류 예상 변경없어...미룰 수 없는 과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어떻게 하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올해 봄이나 여름쯤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도쿄전력이 방류 시설 공사를 올해 봄까지 끝낼 예정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오노 아키라 후쿠시마 제1폐로 추진컴퍼니 최고책임자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해양 방류에 필요한 시설 공사와 관련해 "봄 무렵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노 최고책임자는 오염수 방류에 현지 어민들

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명이라도 많은 이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류 시설 공사가 끝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검사한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계획인지 확인하고 방류 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포괄적 평가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현지 언론은 실제 방류 개시는 6월 이후 여름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ℓ 당 1천500벵켈(Bq) 미만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외신 기자 대상 온라인 브리핑 때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ALPS 처리수')는 133만㎡라고 밝혔다.

1천 개가 넘는 저장탱크 전체 용량 137만㎡의 97.1%가 채워진 셈이다.

다만, 지난달 중순 기준 오염수 발생량은 하루 100㎡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저장탱크 만재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내년 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하루 발생량은 2016년 493㎡, 2017년 301㎡, 2018년 211㎡, 2019년 185㎡, 2020년 170㎡, 2021년 126㎡로 감소해왔다.

도쿄전력은 작년 3월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하루 오염수 발생량이 130~150㎡(작년 2월 기준)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크게 줄어든 100㎡라고 밝혔다.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가 늦어지면 오염수 방류 시점도 늦출 여지가 있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계획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 위원회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을 예상하는 것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2월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면서 "후쿠시마 부흥 실현을 위해 처리수의 처분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오노 최고책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에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의 핵연료 잔해인 데브리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에서는 데브리가 발생했다.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고난도 작업으로 꼽히는 데브리 반출은 애초 지난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반출 로봇팔 격납 설비 불량 등으로 연기됐다.

[출처: 연합뉴스]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 환경부 '조건부 동의'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실상 최종 관문이 뚫렸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 작업은 40년 만에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

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환경부에 앞서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기관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온 만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 역시 문재인 정권 당시엔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기점으로 다른 국립공원 개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출처: 노컷뉴스]

# 5만명 청원 '탈석탄법' 논의 시작 ...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안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탈석탄법) 논의를 시작했다. 청원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는 청원을 유사한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탈석탄법 청원을 심의했다. 청원소위는 청원의 내용이 산자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너지전환지원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기존 발전사업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탈석탄법 청원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법령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단위발전량당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5만여 명이 동의해 지난해 9월 30일 청원이 산자위에 회부됐다.

특히 청원인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민간 석탄발전소 3기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중략)

탈석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반대가 가장 거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청원소위에 앞서 반대 의견을 냈다.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시 이미 투자한 건설비와 향후 기대수익 등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허가 취소에 따른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에 우리"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일부 발췌]

##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월 15일 서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766회.**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횡수입니다. (중략)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위험으로 막는 것입니다.

**167달러.** 핵발전의 발전 단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략)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67달러로 2009년 보다 36%가 올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64가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무려 64가지나 되며, (중략) 최근에도 인근 바다에서 고방사능에 피폭된 해양생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3회.** (중략) 국내 핵발전소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이미 25차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 배수구를 막은 탓에 가동을 멈춘 사례도 무려 8회나 됩니다. (중략)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확대한 핵발전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 더 위험하고 불안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중략)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나 방법이 없으니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중략) 핵발전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한 에너지입니다.

(중략) 핵발전을 멈추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략) 기후위기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중략)

2023년 2월 15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일부 발췌]

##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2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입			지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36,194,886	인건비	급여	4,600,000
회비	개인회비	4,810,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469,620
	계	4,880,000		계	5,484,90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79,200	경상비	복지후생비	54,000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204,530
	계	79,200		소모품비	23,800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471,430
	계	-		기타운영비	252,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1,006,66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
	계	-		생화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2,868,450
	계	-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		연대사업	391,600
	계	-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3,260,050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31,402,476
		계		31,402,476	
월수입 총계		4,959,200	월지출 총계		9,751,610
수입 합계		41,154,086	지출 합계		41,154,086



### 2월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2월 7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2월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기후위기 충남행동 전체회의

지난 2월 16일 내포혁신 플랫폼에서 기후위기 충남행동 전체회의에 참여했습니다.



### 당진시에너지전환정책포럼 총회 개최

지난 2월 9일 당진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에너지전환정책포럼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에코생협 대의원 대회 참가

지난 2월 23일 서울 회화나무홀에서 에코생협 대의원대회에 참여했습니다.



### 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 감사

지난 2월 9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2022년 사업 및 결산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 공동의장단 회의

지난 2월 27일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 01 일반사업

- ❖ 3/0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사회 토론회 - 온라인  
기후위기 충남행동 전체회의 - 온라인
- ❖ 3/03 에코생활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활 당진점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총회 - 내포혁신플랫폼
- ❖ 3/07 3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3/0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 - 송산 가곡교차로  
시민지속가능발전소 공모사업 심의 - 공익활동지원센터
- ❖ 3/09 후쿠시마 사고 12주년 탈핵행진 - 서울 광화문 일대
- ❖ 3/11 고리2호기 핵발전소 폐쇄 탈핵행동 - 부산 송상현광장
- ❖ 3/13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 회의- 미정
- ❖ 3/15 지속가능상생재단 공모사업 설명회 - 송산면주민자치센터
- ❖ 3/16 기후위기충남행동 전체회의 - 온라인
- ❖ 3/17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환경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5차 공론장 -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 3/18 물의 날 기념 석문호 살리기 캠페인 - 석문호 주변
- ❖ 3/22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대회 - 당진시청
- ❖ 3/23 당진시 담수호 수질개선협의회 회의 - 당진시청
- ❖ 3/28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 3/30~31 신규석탄화력발전 반대 캠페인 - 삼척, 강릉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3/28(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탄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김연화(송산면) 인광교(송산면) 정희구(태안군)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준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운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한순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맹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용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용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린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규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만교 인현욱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분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환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린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준국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이 최오상 최원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미경 한민국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울건설산업 (주)디에스 글로벌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3월 7일 입금기준입니다.

#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

## 석문호를 살리자!

석문호 해수유통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석문호 정화활동을 회원님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 시** 2023년 3월 18일 (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석문호 주변

- 석문호 해수유통 캠페인 및 정화활동
- 봉사시간 2시간 적용
- 간단한 간식 제공
- 3월 16일까지 신청 (사무국 355-7661)

## 탄소중립 실천 행사 및 한마당 개최

**일 시** 2023년 3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당진시청 일원

- 주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 내용: 탄소중립 배출기업과 실천운영 협약식, 명사특강, 퍼포먼스 등
  - 환경사진전, 환경물품 나눔장터, 탄소중립 실천생활 홍보 등
  - 야외행사: 연극, OX퀴즈, 체험행사 등
- \*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 체험행사와 재생에너지 바로알기 OX퀴즈를 진행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